

{-었었}의 의미와 기능

고 정 의

국어국문학과

(1982. 6. 30 접수)

<요 약>

국어의 선어말 어미 {-었었-}의 의미 기능은 시제, 상, 서법 등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상과 서법적 관점에서 '단속상', '완료-재확인(또는 완료 회상 재확인)상', '경험-대조상', '경험' 등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와같이 상이한 논의들이 동일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었었-}이 나타내는 이차적 의미의 규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었었-}의 의미는 형태소 자체의 기능적 의미에서 규명될 것이 아니고 발화상황에 따른 문맥적 의미에서 논의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을 밝히고, {-었었-}은 과거 경험을 진술하는 형태소로서, 그 경험의 주체는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화자임을 살펴 보았다. 한편, {-었었-}은 형태적으로는 복합형태로 보아 앞의 {-었-}은 과거를, 뒤의 {-었-}은 경험의 진술을 나타내는 것임을 고찰하였다.

The Meaning and the Function of {-æssæss-}

Ko Jung Ui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Received June 30, 1982)

<Abstract>

The meaning and the function of the pre-final ending {-æssæss-} have been variously examined in terms of tense, aspect, and mood. In particular, its aspect and mood have been investigated in depth: for example, non-durative, perfective-emphasis (or retrospect), confirmation aspects, and experience in terms of mood.

In this paper, however, it will be suggested that these arguments are not substantially different, but only originate in th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contextual meaning of {-æssæss-}. Its real function is a matter of discourse level which must be analyzed in terms of contextual meaning according to the situations of utterance. It can not be simply dealt with in terms of its lexical meaning. In conclusion, {-æssæss-} expresses experience. The experiencer is the describer of the experience. And {æssæss} is morphologically a compound form.

I. 서 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었었-}⁽¹⁾은 시제나 상의

문제 혹은 서법 등의 문제와 더불어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남기집(1972) 및 남기집(1978 b), 정기철(1974), 김석득(1974), 서정수(1976), 이남준(1981) 등에서 {-었었-}의 의미와 기능이 다각

(1) {-었었-}은 /-었(ㅅ)었-/ , /-았(ㅅ)었-/ , /-였었-/ , /-렸었-/의 변이형이 있다.

적으로 검토되고 가능한 거의 모든 논의가 이루어졌다.⁽²⁾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있었-}의 의미와 기능이 선명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무엇인가 미진한 듯한 느낌을 부정할 수 없다.

{-있었-}이 이렇듯 미진한 듯한 느낌을 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첫째로, 국어가 시간성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단독적 지표로기는 ‘시상’(tense-aspect)과 ‘양상’(aspect)을 나눌 수 없는(未分化) 그 둘의 “혼합자질의 융합체”(김복득 1974: 112)란 사실과 국어가 서술어 중심의 일원적 특징을 지닌 언어(한병희 1965: 144)이기 때문에 시제에 대한 의식보다는 동작의 상(aspect)에 대한 의식을 더욱 강하게 갖는내서⁽³⁾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시제와 상은 시간의 속성을 순간적인 것으로 인식하느냐 지속적인 것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른 시간 인식의 양면성이 자연 언어에 반영된 것이므로 순간적인 면만을 강조하면 시제만을 주장하게 되고 지속적인 면만을 강조하면 상만을 주장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의 속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있었-}은 달리 다루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용언에 따라 그 의미 특성이 시제나 상과 밀접한 관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있었-}이 나타내는 의미 기능이 그 어휘 자체의 어휘자질에 따른 것인가 아닌가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⁴⁾ 이러한 어휘자질이 고려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있었-}의 정확한 의미 기능을 규정할 수 없게 된다. 셋째로, 의미는 어떤 형태가 갖는 고유한 기능에서 비롯되는 기능적 의미와 그 형태가 다른 형태와 결합하는 관계속에서 나타나는 문맥적 의미의 두 면(Köno 1957)이 있으므로, {-있었-}이 쓰인 경우 그 의미가 형태소 자체의 고유한 기능에 따른 것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여야 한다. 언어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기술되지 않으면 안된다(Nida 1949: 7).

(2) {-있었-}은 다음과 같이 검토되었다.

주시경(1910), ‘맞아지난 때’
 박충빈(1935), ‘大過去’, ‘過去完了’
 남기섭(1972), ‘斷續相’
 성기철(1974), ‘經驗의 形態’
 김복득(1974), ‘완료-제확인(또는 완료 회상제확인상)’
 김남길(Namkil Kim)(1975), ‘경험-대조상’
 이남순(1981), ‘기대 혹은 예견’

(3) J. Lyons(1977: 705)에 따르면 세계의 언어중 상을 가진 언어가 시제를 가진 언어보다 훨씬 많고, 상이 시제보다 더 원칙적으로 더 기본적이다.

(4) 이 점은 성기철(1974), 서정수(1976), 이남순(1981)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5) 서정수(1976)에서는 정확한 규정은 내리지 않았으나 {-있었-}이 {-있-}보다 더 먼저이고 확실한 과거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6) 이러한 규정의 두의미에 대하여는 성기철(1974: 247--252) 참조.

일반적으로 형태소의 고유한 素性은 서로 다른 것들과 함께 겹쳐 쓰이는 경우보다는 단독으로 쓰일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있었-}이 이 시현하는 특징도 이러한 구조에서 가장 용이하고 직결하게 기술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있었-}의 의미 자체가 적어도 두 가지 다른 범주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성 때문이다. 이것은 곧 {-있었-}의 용법을 발화 상황(utterance situation)의 상향소(deixis)적 입장에서 살펴야 되는 계기가 된다.

지금까지 {-있었-}의 의미 기능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그 해석과 의미 규정이 여러 가지 상이한 견해를 보여 온 것은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종래의 {-있었-}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볼 때 우리는 그 논의들이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반성하게 된다.

첫째,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있었-}의 의미와 기능을 지나치게 주관이나 인상에 의존하여 논의를 전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있었-}을 시제형태소로 다루는 데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있었-}을 “꽤 오래 전에 행하였던 동작이나 작용”(이희승 1965: 69), “행동이 훨씬 전에 끝난 것”(이승녕 1968: 110), “과거보다 더 이전에 끝난 것”(강복수, 유창균 1969: 66), “과거보다 그 이전에 어떤 동작이 일어났다가 그 상태나 지취같은 것이 이미 사라지고 없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김승곤 1972: 115-128), “더 먼저이고 확실한 과거성을 지닌 것”(서정수 1976: 149)⁽⁵⁾ 등으로 보아 대과거로 규정한 것은 하나같이 명백한 기준시점이 제시되지 않고 ‘꽤 오래 전’, ‘훨씬 전’, ‘과거보다 더 이전’과 같이 막연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었다.⁽⁶⁾ 과거시란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는 것인데, 대과거란 과거의 사건시보다 더 이전에 끝난

것이라고 할 때, 이 둘의 관계가 모호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있었-}이 {-있-}에 비하여 항상 선행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에서

(1) 복동이가 어렸을 적에 젖을 먹었다.

{-있었-}이 ‘꼭 오래 전에 행하였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어렸을 적에’란 시간어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 그 자체의 고유한 기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1)의 ‘어렸을 적에’ 대신 다음과 같은 시간어 ‘금방’을 대치시키면

(2) 복동이가 금방 젖을 먹었다.

{-있었-}은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을 나타내고 있다. 곧 ‘오래 전’의 일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 다음 예문에서,

(3) 우리는 그 때 밥을 먹었다.

(4)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있었-}은 ‘과거보다 더 이전에 끝난 것’이라고 하는데, (3)에서 ‘그 때’를 기준되는 과거시로, ‘먹었다’를 그 이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바로 ‘그 때’에 밥을 먹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먹었다’가 ‘그 때’보다 이전일 수도 있고 동시적일 수도 있어서 꼭 ‘더 이전에 끝난 것’이라고 한정할 수 없다. 또 (4)는 (4)만을 독립시켰을 때 ‘과거’와 ‘그 이전’을 대비할 아무 근거도 전제할 수 없다. 또 다음 예에서,

(5) a. (갑) : 영희가 어릴 때 부지런했나요?

b. (을) : 네, 부지런했어요.

c. (병) : 네, 부지런했었어요.

(5) a (갑)의 질문에 대하여 (5) b (을)와 (5) c(병)의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하는 것일 때, (병)이 (을)보다 더 먼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성기철 1976) 또,

(6) a. 나는 부산에 갔을 때 친구를 만났다.

b. 나는 부산에 갔을 때 친구를 만났었다.

(7) a. 나는 부산에 갔었을 때 친구를 만났다.

b. 나는 부산에 갔었을 때 친구를 만났었다.

(6)과 (7)에서 사건의 계기 순서는 내가 부산에 간 것이 먼저이고, 친구를 만난 것은 뒤의 일이다. 그러므로 {-있었-}이 대과거이고 {-있-}이 과거라면 {가-}에는 {-있었-}이, {만나-}에는 {-있-}이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6) a, b, (7) a, b에서와 같이 {-있-}과 {-있었-}은 사건의

시간상의 계기적 순서와는 관계 없이 혼용되고 있다. {-있-}과 {-있었-}의 형태적 고유 기능이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6), (7)에서 {-있-}과 {있었-}이 뒤섞여 쓰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6) a의 ‘있...있’, (6) b의 ‘있...있었’, (7) a의 ‘있었...있’, (7) b의 ‘있었...있었’의 공기관계는 {-있-}보다 {-있었-}이 반드시 선행하거나 훨씬 전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 {-있었-}의 다양한 의미를 {-있-}과 대조하여 어느 한 가지로 한정시켜 그것을 {-있었-}의 의미 기능을 대표하는 것으로 다루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있었-}을 ‘단축상’(남기심 1972), ‘완료-재확인(혹은 회상)상’(김석득 1974), ‘경험-대조상’(Kim 1975), ‘강조’(An 1980), ‘거듭확인’(박창해 1964) 등으로 다룬 것은 이러한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⁷⁾

셋째, 지금까지 각각의 논의들에서 논의된 {-있었-}의 의미가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상이한 규정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곧 지금까지의 {-있었-}에 대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주관적인 자료의 선택과 그 자료의 해석에서 오는 차이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뒤(II)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의 {-있었-}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있었-} 자체가 지나고 있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견해를 보여 왔다. 우리는 {-있었-}이 시현하는 문법적 소성(素性)을 간결하게 규정할 수 없을 만큼 {-있었-}의 의미는 중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하여 기왕의 논의들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본 뒤에 {-있었-}의 본질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II. 몇 가지 논의의 문제점

최현배(1971 : 450)에서 {-있었-}은 과거완료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난적 끝남은 지난적에 움직임이 막 끝나서 그 결과가 그 때에 들어나아 있었음을 보이는 때매김이니, 지난적에 움직임을 마쳤기 때문에, 시방은 그 결과가 들어나아 있지 아니

(7) 이런 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II참조. Kim(1975), An(1980)은 이남순(1981)의 논의를 참고.

함⁽⁸⁾이 예사이다'라고 하면서 다음의 예문을 제시하였다.⁽⁹⁾

(8) 그도 같이 갔었다.

(9) 내가 여기 그것을 두었었다.

(10) 그도 그 때에는 동의하였었다.

그러나 예컨대 (8)은 '그때—그곳'의 기준에서 '그는 가고 없었다'는 뜻이 되지만, '이때—이곳'의 시점에서는 그가 여기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8)–(10)이 그 자체로 완전한 독립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들만을 독립시켜 놓고서는 {-있었-}의 의미를 완전히 해석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곧 발화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은 그 결과가 들어나아 있지 아니함이 예사이다'라고 그 반대로 지금 그 결과가 드러나 있을 수도 있음을 배제하여서는 안된다. 이런 사실은 (9)를 다음과 같이 조금 변형시켜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1) 내가 여기 그것을 두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구나.

(11)에서 {-있었-}은 여기 두었던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므로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결과가 드러나 있거나 없는 것은 {-있었-}의 고유한 기능에서 비롯되는 의미가 아니고 발화 상황에 따른 화용론적 레벨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다.

김석득(1974: 121–123)에서는 {-있었-}이 “지난 시간의 주체동작의 완료수말하는 이의 재확인”의 복합적 시상으로 보아 이를 “완료-재확인(또는, 완료 회상 재확인)상”으로 보았다. 즉 다음 예에서

(12) a. 그는 작년에 프랑스에 갔다.

b. 그는 작년에 프랑스에 갔었다.

(13) a. 그는 작년에 결혼했다.

b. 그는 작년에 결혼했었다.

(12) a는 단순히 '그가 작년이라는 시간에 프랑스에 간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13) a는 주체자의 결혼 동작이 작년에 완료된 것을 서술할 뿐이나, (12) b는 작년에 그가 프랑스에 가는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있-}으로 지표하고 있으나, 화자가 그가

프랑스에 간 것을 {-있-}으로 재차 확인 강조(혹은 회상 강조)하는 것이고, (13) b는 주체자가 과거에는 결혼 동작을 완료하였으나, 지금은 이혼 상태에 있음을 보고, 화자가 주체자의 과거의 결혼 완료하였음을 회상하면서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있었-}은 “그것이 배합되는 풀이새 어간(stem)의 의미자질(또는 변별적 자질, distinctive features)에 따라 주체자의 있음의 의미를 달리 유도하거나, 혹은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시상의 쪽으로 보면, 모두 같이 시간적의 주체 동작 완료와 말하는 이의 재확인(회상)의 복합체인 양상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12) b의 {-있었-}이 '재차 확인 강조'하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고, (13) b가 현재 그가 이혼 상태에 있음을 보고 하는 말인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12) b, (13) b가 각각 다음과 같이 (14), (15)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14) 그가 프랑스에 간 것은 작년이었던다.

(15) 그가 결혼한 것은 작년이었던다.

{-있었-}이 강조를 나타낸다는 것은 An(1980)에서도 지적된 것이다.

(16) a. 영화는 아주 예뻤다.

b. 영화는 아주 예뻤었다.

(17) a. 철수는 열심히 공부했다.

b. 철수는 열심히 공부했었다.

(16), (17)이 모두 과거 사실을 나타내지만, (16) b는 영화가 지금은 예쁘지 않다는 것을, (17) b는 철수가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곧 {-있었-}의 기능이 “강조”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16) b와 (17) b가 과거와 현재의 비교적 의미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절한 시가어가 주어졌을 때 분명히 알 수 있다.

(18) 영화는 그 때도 아주 예뻤었다.

(19) 철수는 그 때도 아주 예뻤었다.

(18)과 (19)에서는 물론 '역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도}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 조사의 개입이 {-있었-}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성기철 1974). 또, 다음에서

(8) 이러한 '단속'의 의미는 주시경(1910: 99–100) “엇엇은 간 채의 보임이라 이는 남이 썰이 다 되어 그 실을 활의 다 됨이 깨끗함으로 있다가 다시 더럽게 되어 썰을 활의 들어남이 없어진 것이니 묻지 었은 벌이 다 됨을 보임이요, 알에 었은 그것이 없어짐을 보이는 것이다.”와 박승빈(1935: 328) “두는 사실이 경과되고 그 결과인 상태가 現在에 공속해야 잇디 아니한 境遇에(또는 그러한 觀念으로) 使用됨. 이를 大過去이라고 이름”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9) 예문(인용에 포함)의 번호는 원자의 편의에 따름. 논의 전개상 인용되는 예의 당해 거서나 논문은 편의상 인일이 남지 않는다.

- (20) a. 철수는 열심히 공부했었으나 시험에 실패하였다.
 b. 철수는 열심히 공부했었으나 영희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21) a. 네 옷에 먼지가 묻었다.
 b. 네 옷에 먼지가 묻었었다.

(20) a는 철수가 열심히 공부했던 사실과 시험에 실패한 두 사건의 인과관계에, (20) b에서는 철수와 영희가 각각 열심히 공부한 사실과 공부하지 않은 사건의 비교와 대조에 {-있었-}이 쓰이고 있다. 또 (21) a와 (21) b에서 (21) a는 발화시 현재 옷에 먼지가 묻어 있는 사실을, (21) b는 먼지가 떨어진 상태를 나타내는데, (21) b가 ‘갑’이 ‘을’에게 ‘왜 때려’하고 물었을 때, 을이 갑에게 너를 때린 것이 아니고 옷에 묻은 먼지를 떨기 위하여서였다는 뜻으로 대답하는 경우라면 이 때의 {-있었-}을 재확인이나 강조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21) b는 단순히 먼지가 묻었던 사실, 화자가 몸소 본 사실을 진술하는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있었-}이 강조를 나타내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발화상황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확인 또는 강조는 이미 있었던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결국 경험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회상의 의미이든 단속의 의미이든 그것은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했던 사실의 진술에서 파생되는 이차적 의미일 것이므로 재확인, 강조 등은 과거 경험 사실의 재확인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있었-}의 의미가 비계속적이라는 것은 앞의 논의 뿐만 아니라 김윤경(1957), 김승곤(1972) 등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남기섬(1972)에서는 {-있었-}은 과거완료나 대과거가 아니라 완료된 상태의 단속을 보이는 단속상⁽¹⁰⁾으로 규정되었다. 곧, 다음에서

- (22) a. 그는 부산에 갔다.
 b. 그는 부산에 갔었다.
 (23) b는 그가 부산에 갔다 돌아온 것 즉, ‘간’ 상태가 지속되지 않은 단속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있었-}이 ‘단속’의 뜻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차이가 상황구성요소에 따라 소멸되거나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령(22) a

(10) ‘단속’이 단순히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은 남(1978b) 참조.

- 와 (22) b가
 (23) a. 그는 어디 갔니?
 b. 그는 부산에 갔다.
 c. *그는 부산에 갔었다.
 (24) a. 그는 어디 갔었니?
 b. *그는 부산에 갔다.
 c. 그는 부산에 갔었다.
 (25) a. 그는 그 때 어디 갔니?
 b. 그는 그 때 부산에 갔다.
 c. 그는 그 때 부산에 갔었다.
 (26) a. 그는 그 때 어디 갔었니?
 b. 그는 그 때 부산에 갔다.
 c. 그는 그 때 부산에 갔었다.
 (23)-(26)의 b, c와 같이 (23)-(26)의 $\frac{1}{2}$ 자 a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때, (23) a. ‘갔니’에 대하여 (23) b ‘갔다’는 가능하지만 (23) c ‘갔었다’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 (24) a ‘갔었니’에 대하여 (24) b ‘갔다’는 부자연스럽지만 (24) c ‘갔었다’는 자연스럽다. 그리고 (25) a와 (26) a의 ‘갔니’와 ‘갔었니’에 대하여 ‘갔다’와 ‘갔었다’는 별 의미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22) a, b의 의미차가 {-있-}과 {-있었-}의 지속과 단속의 의미에서 말미암은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만일 (22) a, b의 차이가 {-있-}과 {-있었-}의 고유한 기능에 따른 기능적 의미의 차이라면 우리는 (25)와 (26)에서 왜 {-있-}과 {-있었-}이 동일한 질문에 대한 동일한 답변이란 같은 상황에 함께 쓰이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이 둘이 함께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소홀하게 다루거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22) b가 반드시 그가 부산에 가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 온 것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가 갔다 와서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그 곳에 갔다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리킬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단속이란 “어떤 상태가 뒤로 이어지지 않은 것”, “전의 어떤 사건(또는 상태)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려는 의도가 없을 때, 또는 전의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므로 (22) b는 그가 부산에 가고 난 이후의 일(말하는 이가 책

인지지 않는, 또는 앎으리 하는)이 그가 부산에 간 일과 현재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것이고, 이것에 의하여 그가 부산에 간 일과 현재와의 사이에 하나의 벽이 되어 그 연결이 끊긴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단속이라고 한다(남기섬 1978 b). 그러나 이런 해석은 결국 그가 부산에 간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시간상의 거리를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단속’이란 이런 경우 시간상의 실·후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면 ‘단속’이란 어디까지나 {-있었-}이 발화상황에 따라 나타내는 의미의 하나이지 그 본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2) b의 ‘있었다’는 결국 화자가 그가 부산에 다거에 간 일 또는 갔다온 사실이 있었음을 경험한 경험주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 (27) a. 철수가 병원을 전에 먹었었다.
 b. 철수가 병원을 전에 먹은 일이 있다.
 c. 철수가 병원을 전에 먹었었지만 지금은 안 먹는다.

(27) a를 (27) b, c와 같이 환치(paraphrase)시켰을 때 (27) b는 철수가 병원을 전에 먹은 일이 있었다는 주어의 경험을 나타내고, (27) c는 과거에는 먹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 먹는다는 대조적 의미와 단속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27) c를 다음과 같이 조금 변형시키면,

- (27) c'. 철수가 병원을 전에 먹었었는데 지금도 즐겨 먹는다.
 (27) c''. 철수가 병원을 전에 먹었었는데 그렇게 맛있어 했다.
 c'''. 철수가 병원을 전에 먹었었는데 복통을 일으켰다.

(27) c의 대조·단속적 의미와는 현격한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27) c가 단속이나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먹다’와 ‘안 먹다’와 같은 대조적 사건이 한 문속에 나타났기 때문이다(이남순 1981). 그러므로 (22) b를 다음과 같이 환치시켰을 때,

- (28) a. 그는 부산에 갔었다.
 b. 그는 부산에 간 일이 있다.

- c. 그는 부산에 갔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다.
 d. 내가 그를 찾아 갔을 때 그는 부산에 갔었다.

(28) c는 ‘갔다’와 ‘여기에 있다’는 대조적 사건이 같은 문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단속적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지, (28) d에서처럼 대조적 사건이 함께 나타나지 않으면 단속적 의미를 느낄 수 없다.

우리는 (27) a와 (28) a의 환치문인 (27) b, c와 (28) b, c에 나타나는 {-있었-}의 의미 중 (27) c나 (28) c가 나타내는 부차적 의미보다 (27) b와 (28) b가 나타내는 과거 사실의 경험의 진술이 더 기본적인임을 알 수 있다. {-있었-}이 문단의 어울릴 때 발화시점 이전에 그 표시하는 상태가 단속된다는 것은 {-있었-}이 엄격한 의미에서 과거시점에 속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있었-}이 과거 경험을 나타내므로 자연히 시간상 현재보다 과거라는 대조적 시간 개념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조적 시간 개념이 과거와 현재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단속’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므로 ‘단속’이란 {-있었-}의 과거 시제성에 내포된 것일 뿐이다(서정수 1976: 145).

{-있었-}이 이와같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있었-}이 사상적으로 복합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지금까지 우리는 {-있었-}은 시제상으로 과거를 나타내는데, {-있었-}이 ‘과거완료’, ‘완료-재확인’(또는, 완료 회상 재확인)상’, ‘경험-대조상’, ‘강조’, ‘단속상’ 등으로 규정된 것은 {-있었-}이 나타내는 경험적 사실의 진술이라는 본질적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동일한 사실에서 파생되는 이차적 의미를 각각 지적한 것임을 논의하여 왔다.⁽¹²⁾ 이러한 관점에서 성기철(1974)에서 {-있었-}을 과거의 경험을 표현하는 형태로 규정하며 {-있었-}의 의미를 밝힌 것은 문체의 본질에 보나 접근한 것이었다.⁽¹³⁾

Ⅲ. {-있었-}의 의미와 형태 분석

1. {-있었-}의 의미

우리는 앞(Ⅱ)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들이 그런지

(11) 이남순(1981)에서는 {-있었-}이 이렇게 의미의 다양성을 보이는 것은 {-있었-}이 기대 혹은 선기(expectation)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대 혹은 예견에 대하여는 Leech(1974: 291-324) 참조.

(12) 남기섬(1978 b)에서, 성기철(1974)에서의 경험이 그의 “‘단속’과 같은 내용의 것을 지칭한 것이라면”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동일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13) 필자는 {-있었-}을 경험의 형태로 본 그의 논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와 다른 것은 경험의 주체를 문장의 주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찬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점은 Ⅲ.1 참조.

으로는 {-있었-}을 달리 규정하여 왔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공통 기반은 {-있었-}이 경험을 나타내는데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러면 {-있었-}의 의미를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29) a.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

b. 철수가 사과를 먹었었다.

(30) a. 철수는 착실했다.

b. 철수는 착실했었다.

(31) a. 그는 빨간 옷을 입었다.

b. 그는 빨간 옷을 입었었다.

(32) a. 그의 얼굴에 잉크가 묻었다.

b. 그의 얼굴에 잉크가 묻었었다.

(29)와 (30)에서 (29) b와 (30) b의 {-있었-}을 (29) a와 (30) a와 같이 {-있-}으로 바꾸어도 과거 일정한 시간 동안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곧 {-있-}과 {-있었-}의 변별성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이들 용언의 자질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31), (32)에서는 (31) a, (32) a같이 {-있-}이 쓰이면 ‘옷을 입은 상태’와 ‘잉크가 묻은 상태’가 발화시까지 지속됨을 나타내지만, (31) b, (32) b와 같이 {-있었-}이 쓰이면 그 상태가 발화시 현재 지속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있었-}이 어울리는 동사의 어휘자질에 따라 그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에는 단절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있었-}이 단속상을 나타내는 것은 {-있었-} 자체의 고유한 기능에서 비롯되는 기능적 의미라고 볼 수 없다. (29)–(32)에서 각 a와 b의 차이는 각 a는 단순히 ‘사과를 먹었다’, ‘착실했다’, ‘빨간 옷을 입었다’, ‘잉크가 묻었다’라는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데 반하여 각 b는 단순히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동작이나 상태를 직접 경험했다는 의미를 내포하여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즉 철수가 사과를 먹는 것을 보았고, 철수가 착실했음을 보았고, 그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의 얼굴에 잉크가 묻었음을 보았다는 경험적 사실의 진술성이 강한 것이다.⁽¹⁴⁾

(33) a. 어제는 바람이 불었다.

b. 어제는 바람이 불었었다.

(34) a. 나는 온 밤을 꼬박 새웠다.

b. 나는 온 밤을 꼬박 새웠었다.

(33) a와 (34) a는 바람이 불었던 사실, 밤을 꼬박 새웠던 일을 단순한 과거의 사실로 나타내는데 비하여 (33) b, (34) b는 화자 자신이 어제 바람이 불었음을, 온 밤을 꼬박 새웠었음을 직접 경험했었다고 진술하는 사실성의 의미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예에서

(35) a. 그는 죽었다.

b. 그는 죽었었다.

(35) b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화자가 그의 죽음을 보았었다는 경험적 진술과는 하등 원연적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35) b의 ‘죽었었다’는 말하는 이가 그가 죽은 것을 보았었다는 사실의 경험적 진술이지 그 후에 그가 실제로 살았거나 죽은 것은 {-있었-} 자체가 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36) 6.25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다.

(36)도 말하는 이가 현재의 시점에서 6.25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자신의 경험적 입장에서 진술함으로써 진술 내용의 사실성을 듣는 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와같이 {-있었-}이 경험적 사실 진술에 쓰이는 형태임을 진지로 했을 때 우리는 미로소 다음에서 {-있-}과 {-있었-}이 함께 쓰이는 이유와 그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다.

(37) a. 철수는 열심히 공부했으나 영희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

b. 철수는 열심히 공부했으나 영희는 열심히 하지 않았었다.

(38) a. 철수는 열심히 공부했었으나 영희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

b. 철수는 열심히 공부했었으니 영희는 열심히 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있었-}이 경험을 나타내던 그 경험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있었-}이 쓰인 경우 그 문장이 지술하고 있는 내용이 화자 자신이 직접 지은 경험적 사실임을 진술할 때 선택되는 것인 점을 주목해 왔다. 따라서 {-있었-}이 쓰인 경우 경험의 주체는 당연히 그 사실을 말한 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14) 이런 관점에서 {-있었-}은 강조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 (39) 나는 공부했었다.
 (40) 너는 공부했었다.
 (41) 그는 공부했었다.

(39)~(41)에서 (39)는 말하는 이 자신인 ‘내’가 경험의 주체가 되고, (40)에서는 ‘너는 공부했었다’라고 말하는 화자가, (41)에서는 역시 이 사실을 말하는 화자가 경험주가 된다. 곧 경험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반드시 일치하거나 화자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42) 이 나무 부러졌었어

(42)에서 {—있었—}의 경험의 주체는 문장의 주어인 나무가 아니고 나무가 부러졌던 사실을 말하는 화자가 된다.⁽¹⁵⁾ 화자 자신이 나무가 부러진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므로 그가 경험했던 사실을 진술하는데 {—있었—}을 개입시킨 것이다. 성기철(1974: 262—264)에서는 (42)의 경험의 주체를 화자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43) (영희가 그러는데) 너도 공부했었어.

(43)과 같은 문장에서 ‘네가 과연 공부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화자인 내가 관찰한 것이 아니고 남(영희)한테 전해 들은 내용이므로 화자인 나의 경험이 될 수는 없듯이 (42)에서도 경험의 주체는 문장 주어인 ‘나무’로 보아야지 화자의 경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43)은 인용문이므로 {—있었—}은 화자인 나의 경험이 아니고, ‘네가 공부한 사실’을 약고있는 사탄인 바르 ‘영희’의 경험이다.

(44) 나도 술을 많이 먹었었니?

(45) 너도 술을 많이 먹었었니?

(46) 그이도 술을 많이 먹었었니?

(44)~(46)에서 {—있었—}의 주체는 이들 의문이 대답해야 할 청자가 된다. (44)에서는 ‘나’의 상대자인 ‘너’, (45)에서는 주어와 청자가 동일하므로 ‘너’, (46)에서는 이 질문을 받는 청자가 각각 건넌주가 된다. 이와같이 (44)~(46)에서 경험의 주체가 청자가 되는 이유는 이들 의문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답을 짐토해 보던 분명하게 알 수 있다.

(47) a. 너도 술을 많이 먹었었다.

b. 너는 술을 많이 먹지 않았었다.

(48) a. 나도 술을 많이 먹었었다.

b. 나는 술을 많이 먹지 않았었다.

(49) a. 그이도 술을 많이 먹었었다.

b. 그이는 술을 많이 먹지 않았었다.

(47)~(49)에서 ‘먹었었다’와 ‘먹지 않았었다’의 행동주는 물론 ‘너, 나, 그이’이고, 또 이들은 경험주이기도 하지만 (47)의 ‘네가 술을 많이 먹었던 사실’, (48)의 내가 술을 많이 먹었던 사실, 그리고 (49)의 그이도 술을 많이 먹었던 사실을 진술하는 서술의 주체는 화자가 되므로, (47)~(49)의 {—있었—}의 주체는 진술자인 화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47)~(49)의 질의는 청자의 ‘나, 너, 그이’에 대한 경험적 사실의 진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50)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었다.

(51) 어제는 열음이 풀렸었는데……

(52) 지난번 지진 때는 유리창이 모두 깨졌었다.

(53) 어제 밤 꿈에 그가 왔었는데

(50)~(53)의 {—있었—}의 주체는 문장의 주어인 ‘비, 열음, 유리창, 그’가 아니고 (50)~(53)과 같은 사실을 말하는 화자가 된다.⁽¹⁶⁾ 비가 많이 왔었던 사실, 열음이 풀렸던 사실, 유리창이 깨졌던 일, 꿈에 그를 본 일 등 화자가 경험했던 사실의 진술이므로 {—있었—}이 쓰인 것이다. 다음과 같은 추측회화의 의문문의 경우에도 경험을 진술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54) 내가 그렇게 했었을까?

(55) 네가 그를 때렸었을까?

(56) 그이가 돌을 던졌었을까?

(57) 이 책장이 떨어졌었을까?

(54)~(57)은 화자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추측이라고 볼 때 화자의 경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듯이 보인다. (성기철 1974: 263—264) 그러나 (54)~(57)에 {—있었—}이 개입할 수 있는 이유는 화자가 비록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더한 회추측은 자기의 경험적 판단에 의한 서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54)는 ‘나’에 대한 회화의 의문이므로 자기의 경험적 판단에 따른 서술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57)도 책장이 떨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을 어떤 객관적 견제 상황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경험적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55), (56)에서는 ‘너’와 ‘그’에 대한 그 이전의 경험적 사실을 전제로 하여 ‘네 자신이 그를 때렸을런지 아닌지’와 ‘그가 돌을 던졌을런지

(15) 성기철(1974: 262—264)에서는 {—있었—}의 주체를 문장주어로 규정하고 있다.

(16) 이점은 남기철(1978 b)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므로⁽¹⁷⁾ (54)-(57)에 {-있었-}이 개입한 것은 자연스럽다. 감탄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58) 나도 그걸 보았었구나.
- (59) 너도 그걸 보았었구나.
- (60) 선생님도 오셨었구나.
- (61) 이 건물도 금이 갔었구나.

(58)-(61)의 경험의 주체는 남의 말을 통해서 이상의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먼저 (58)의 주어는 1인칭 화자인 나 자신으로 내가 그것을 보았던 사실이 있었음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있었-}이 쓰인 것이고, (59)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네'가 화자인 '나'에게 그것을 보았었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화자가 그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있었-}이 쓰인 것이다. (60)도 누군가가 화자에게 선생님이 오셨던 사실을 얘기해 줬으므로 화자가 그 사실을 진술하는데 {-있었-}이 개입된 것이고, (61)도 건물에 금이 갔던 사실을 남의 얘기를 통하거나 자신이 흔적을 목격하거나 해서 말하는 것이므로 {-있었-}이 쓰인 것이다.

2. {-있었-}의 형태 분석

지금까지 {-있었-}의 형태 분석은 이승녕(1968), 이익섭(1970), 최현배(1978), 허웅(1969), 서기철(1974) 등에서는 복합형태⁽¹⁸⁾로, 이회승(1965), 강복수·유창균(1969), 남기섬(1972) 등에서는 단일형태로 다루어졌다.

{-있었-}을 단일형태로 보느냐 복합형태로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고찰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있-}과 {-있었-}의 발달과정에 대한 통시적 고찰이 {-있었-}의 의미와 형태 분석에 극히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있-}은 중세어에서 부동사어미 {-아/어}에 존재의 동사 어간 '잇'의 결합⁽¹⁹⁾으로 이루어진 '잇'의 발달로 보인다. 다음에서

(17) (54)-(57)은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실일 뿐이다. 그러나 (55)에서 '너', (56)에서 '그이'는 이미 알고 있는 존재다. 단일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 (56)같은 문장은 성립하기 힘들다.

(18) 복합형태라 하더라도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다.

(19) 이승욱(1958: 36-40), 이기문(1978: 212) 참조.

이승욱(1958)에서 국어의 과거형은 copula의 형성으로 분이 일반적이지 지적되고 있다.

$$\begin{array}{l} -ass \} \langle -a \text{ is} \} \langle -a \text{ is} \\ -ess \} \langle -e \text{ is} \} \end{array}$$

(20) 初等小學 卷六 9 a

(21) 同書 五 35 b

- (62) a. 石壁에 수뻬던(龍歌 86)
- b. 님그미 나갓터시니(龍歌 49)
- c. 一界에 周編亨엿다가(楞二 35)

(62) a의 '수뻬던'은 '수머 잇던'의, (62) b의 '나갓터시니'는 '나가잇터시니'의, (62) c의 '亨엿거늘'은 '亨야 잇거늘'의 축약으로 보이는데 '어잇'은 완료의 지속을 나타낸다. (이승녕 1981: 272) {-있었-}은 형태적으로 {-있₁+있₂-}로 볼 수 있는데, {-있₁-}은 초기에는 완료를 나타내다가 {있₂}와 결합하여 현대국어로 넘어오며 생산적으로 쓰이면서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있었-}의 용례는 초기 현대국어에서는 생산적이지 아니었다.

- (63) 波斯라 亨는 國은…… 古時에 極히 強盛亨 았섯느니라.⁽²⁰⁾

- (64) 其木은 발서 中間이 부러졌더라.⁽²¹⁾

(63)에는 '強盛亨 았섯느니라'와 같이 {-있었-}이 쓰이고 있으나, (64)에서는 {-있었-}이 쓰이지 않고 '부러졌더라'와 같이 {-있-}이 쓰이고 있는데 (64)는 문맥으로 보아 '부러졌더라'를 '부러졌었다'로 바꾸면 아주 자연스럽게 의미가 분명해진다.

{-있었-}은 실제 발화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휴지를 둘 수 있다. 다음에서

- (65) a. 나는 그것을 보았었다.
- b. 나는 그것을 보았 \surd 었다.
- (66) a. 영화는 아주 예뻤었다.
- b. 영화는 아주 예뻤 \surd 었다.

(∨는 휴지)

(65) b, (66) b의 '보았 \surd 었다', '예뻤 \surd 었다'와 같이 중간에 휴지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은 {-있₁-}과 {-있₂-} 사이에 형태소 경계를 둘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있었-}에서 {-있₂-}는 {-있-}으로는 실현되는 일이 없이 항상 {-있-}으로만 실현되는 분포적 제약을 보인다.

이상 몇 가지 사실로 보아 {-있었-}이 화자의 경험적 사실의 진술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있₁-}

은 과거를, {-있₂-}는 경험의 진술을 나타내는 형태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²²⁾

III. 결 어

우리는 지금까지 국어의 선어말어미 {-있었-}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이왕의 논의들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요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있었-}은 시제와 상의 범주를 함께 가지고 있는 '혼합자질의 융합체'이므로 시제나 상 어느 일면의 범주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시제와 상 두 범주로 공히 다루어야 한다.

둘째, {-있었-}은 동사의 의미특성에 따라 상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있었-}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서는 어휘자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의미는 그 형태 자체가 갖는 고유한 기능에서 비롯되는 기능적 의미와 그 형태가 다른 형태와 결합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맥적 의미의 두 가지가 있으므로 {-있었-}의 의미는 그것이 쓰이는 환경 즉 발화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형태소 {-있-}과 {-있었-}의 의미가 반드시 대조적인 것으로 대비시켜 {-있었-}의 의미를 규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대비에서 규정되는 {-있었-}의 의미는 {-있었-}이 나타내는 의미의 일면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방법론에 따라 {-있었-}의 의미 분석을 논의한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 {-있었-}이 시제 범주상 대과거 또는 과거완료로 분류되어 온 것은 기준시가 무시된 모호한 개념으로, {-있었-}은 대과거를 나타내지 않는다.

2) {-있었-}이 '완료-재확인(또는, 회상)상', '단속상', '경험-대조상', '강조' 등으로 규정되어 온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있었-}이 나타내는 다양한 이차적 의미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있었-}이 '대조'를 나타내거나, 동사의 특성에 따라 '단속상'을 나타내거나, 사건

(22) 이 점은 성기철(1974: 266)에서 지적되고 있다.

의 선후관계에 따라 '대과거'를 나타내거나, 또는 '강조' 등을 나타내는 것은 {-있었-}의 경험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있었-}이 '과거의 경험'을 표현하기 때문에 때로는 회상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현재와는 내용이 다른 과거의 사실, 즉 단속적 의미로도 의식되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3) {-있었-}은 {-있-}에 비하여 화자의 경험적 사실의 진술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화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경험적 사실로 나타낼 때 {-있었-}이 쓰이는 것이다.

4) {-있었-}의 의미는 {-있었-}이 결합하는 어휘의 자질을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그것은 형태소 자체의 의미에서보다 발화상황에 따른 화용론적 레벨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5) {-있었-}이 진술하는 경험의 주체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고, 그 사실이나 상태를 경험적 입장에서 말하는 화자가 된다. 그러므로 서술문의 경우 주어가 제 1인칭이면 문장 주어와 화자가 일치하므로 경험의 주체는 '나'이지만, 문장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인 경우에는 내용 진술의 화자가 경험주가 된다.

6) {-있었-}은 {-있₁-}과 {-있₂-}로 분석되는데, {-있₁-}은 과거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있₂-}는 경험의 진술을 나타내는 형태소이다.

7) {-있었-}은 {-있-}이 쓰이기 시작된 이후에 발달된 형태로 현대 국어로 넘어오면서 생산적으로 쓰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복수·유창균(1969), 말본, 형설출판사.
 고영근(1965), 현대국어의 서법체계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5.
 김석득(1974), "한국어의 시간과 시상", 「한글연구」 1, 연세대학교 한글연구소.
 김승근(1972), "대과거 시제에 대한 한 고찰" 국어국문학 55-57 합병호.
 김윤경(1957), 고등나라말본, 동아출판사.
 나진석(1971), 우리말의 때때집 연구, 과학사.
 남기섬(1972), "현대국어 시제에 관한 문제", 「국어국문학」 55-57 합병호.

- 남기심(1975), “이른바 국어시제의 기준시점의 문제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3, 계명대학교.
- _____(1978 a), “국어 문법의 상과 시제”, 『한국학보』 가을호.
- _____(1978 b), “‘-있었’의 쓰임에 대하여”, 『한글』 162.
- 노대규(1979), “상황소(deixis)와 한국어의 시제”, 『문법연구』 4.
- 박승빈(1935), 조선어학, 조선어학 연구회.
- 박창래(1964), “국어구조론 연구(3)”, 『연세대학교 80주년 기념 논문집』, 인문과학편.
- 서정수(1976), “국어 시상형태의 의미분석 연구”, 『문법연구』 3.
- 성기철(1974), “경험의 형태 {-있-}에 대하여”, 『문법연구』 1.
- 안병희(1965), “문법론”, 『국어학개론』, 수도출판사.
- 이규호(1968), “말의 힘”, 제일출판사.
- 이기문(1978), 국어사 개설(개정 7판), 탐출판사.
- 이남순(1981), 현대국어의 시제와 상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6.
- 이승녕(1968), 고등문법, 율유문화사.
- _____(1981), 중세국어문법(개정초판), 율유문화사.
- 이승욱(1958), 국어의 시제연구, 『국어연구』 6.
- _____(1977), “서법과 시상법의 교차현상”, 이승녕 선생 고회기념 국어국문학 논총.
- 이익섭(1970), 새국어문법, 서울대학교 재일교포 예비교육과정부.
- 이종철(1964), 현대국어의 시제와 상의 연구, 『국어연구』 12.
- 이희승(1965), 새고등문법, 일조각.
- 주시경(1910), 국어문법(이기문편 1976 所收)
- 최현배(1971), 우리말본, 경음사.
- 허 용(1969), 표준문법, 신구문화사.
- 한국학문헌연구회(1977), 한국개화기 국어학 총서 (1-8), 아세아문화사.
- An, D-H(1980), Semantics of Korean Tense Markers(Ph. D.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 Comrie, B. (1978), Aspect,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 Hockett, C.F.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Katz, J. J. (1973), Semantic Theory, New York: Harper and Row.
- Kim, N-K(1975), “Double Past in Korean”, Foundations of Language 12.
- Kōno, Rokurō(1957), “On the ‘Tense’ System of Middle Korean Verbs.” Memories of the Rese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 16.
- Leech, G.N. (1974), Semantics, Harmondsworth Penguin.
- Lyons, J.(1969),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kau, M.(1976),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M. Shibatani(eds.) Syntax and Semantics 5.
- Nida E.A(1949), Morphology, Ann Arbor.